

humanity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길형 총감독 추천 작품 10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이 작품을 눈여겨 보세요.”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길형 총감독(한국디자인총연합회 회장, 홍익대학교 교수)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는 본 전시 가운데 ‘꼭 봐야 할 작품(색션)’ 10개를 소개했다. ‘HUMANITY(사람사는 세상,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전시는 여느 비엔날레보다 대중성 있는 작품들이 많아 관람객들 사이에서 ‘사진 찍기 좋은 전시’로 입소문이 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작품은 꼭 보세요



키스 마이크로스 작 '볼룸 Ball. room'

◇키스 마이크로스 '볼룸' Ball. room'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이다. 현대인의 감정을 대변하는 다양한 표정의 이모티콘을 노란 공으로 구현해 서로의 감정을 표출해보는 체험형 작품이다. 작가가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13가지 표정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2000여개의 Emoji Ball이 가득 담긴 유리벽 공간에 직접 들어가 자유롭게 만지며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단 로세하르덴 'Lotus Dome' 어두운 전시 공간으로 들어서면 구(球) 모양의 대형 돔 안에 어렴풋한 빛이 보인다. 이 작품은 연꽃이 피어나듯, 관객들이 다가가 온기를 전하면 아주 얇은 스마트 판이 열

리며 빛을 쏠아낸다.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사람의 온기에 반응하는 작품의 특성을 통해 인간이 가진 따뜻한 힘을 느끼게 한다.

◇모두의 거실이 되는 도시 공동체를 위한 건축을 모색해 보는 공간이다. 스위스 비트라 뮤지엄과 공동 기획한 색선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주거와 공공 공간에 대한 디자인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등 실제하는 22곳의 공동생활 프로젝트 공간을 세밀한 모형 작품으로 구성했다. ◇애플박물관을 훑치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철학과 맥킨토시의 역사를

담은 흥미로운 전시다. 오늘날 최초의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아이폰이 탄생할 수 있었던 애플 역사의 변천과정을 다채롭게 보여주는 오래된 기기들과 접단 제품, 스티브 잡스의 조각상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나팔(NAPAL) 스피커 벽에 걸린 화려한 꽃그림 속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스피커가 숨겨져 있다. 액자, 조명 등과 스피커가 조화돼 현재와 미래 공간적 개념에서 스피커의 기능을 확장했다. 음악, 영상, 생활공간의 오브제로서의 오감을 만족하는 반응형 스피커의 다양한 사례를 편안한 소파에 앉아 만끽할 수 있다.

◇2019 기아디자인 아트웍 기아자동차 디자이너들의 상상과 생각을 예술적 감성으로 표현한 전시다. 자동차가 '탈 것'에서 '생활과 문화'로 우리 삶에 스며드는 요즘에 걸맞게 유쾌한 상상으로 구현해낸 다채로운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전시작이 꽤 많아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관람하면 재미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김용호 모던보이(Modern Boy) 포토그래피이자 예술가 김용호 작가의 작품으로 역사상 모더니스트들은 항상 어두운 시대 속에서 홀로 빛을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는 생각을 담아 빛을 발산하는 수십개의 조각상을 배치했다. 작가는 모던보이를 진보적인 지식과 사상으로 시대를 넘어 창의적인 사고로 한 시대를 이끌고 앞서나간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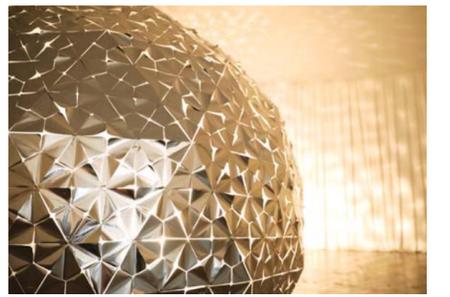
◇디씨와트(deciwatt) 그라비티 라이트 돌과 모래로 채운 주머니를 벽면 또는 천정에 매다는 그라비티 라이트(GravityLight)는 채워진 주머니가 지면으로 천천히 떨어지며 기계장치의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이

를 통해 LED에 약 20분간 빛을 제공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아직도 전기 없이 살아가는 10억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광주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 광주 지역 제품 디자인의 협주곡을 볼 수 있는 기획이다. 지역 제조기업의 디자인역량과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디자인산업 역할의 직접적 성과물로 만날 수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와의 협업 제품, 지역 디자이너 그룹 '역사사소'의 제품 등이 전시됐다.

◇빈센트와 윈디 어반 블룸(Urban Bloom) 전시관 광장에 설치된 상징 조형물로 쉼과 활기를 제공하는 도심 정원이다. 나뭇잎 컬러가 투명하게 비치는 풍선이 공간위에 떠 다니며 재활용이 가능한 산업용 자재와 자연의 야생식물을 함께 모아 정원을 구성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단 로세하르덴 작 'Lotus Dome'

한강 "소설 '흰'은 시이면서 에세이"



'스웨덴 에테보리국제도서전'서 낭송

"비스듬히 천장에 비춰진 광선을 따라 흔들리는, 빛나는 먼지 분말들 속에서 볼 것이다. 그 흰, 모든 흰 것들 속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선 숨을 들이마실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오후 2019 스웨덴 에테보리국제도서전이 열리는 에테보리 전시회의 센터 한 대형홀에 소설가 한강(사진)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울렸다.

스웨덴에도 출간된 그의 소설 '흰'의 일부다. 스웨덴에 올해 번역된 '흰'을 중심으로 한강이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도서전 세미나였다. 대담 형식의 행사 진행을 맡은 스웨덴의 일본계 언론인 유키코 듀크 요청에 한강이 소설 일부를 낭송했다.

한강은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 중 하나다. 이미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흰' 세편의 소설이 번역 출간된 스웨덴에서도 관심은 뜨거웠다. 375석 규모 홀을 가득 채운 관람객들은 숨죽이고 한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강은 "처음부터 이 책이 규정되기 어려운 형식의 책이었으면 했다"며 "결국은 소설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시이기도 하고 소설이기도 하고 에세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0월8일 '문예진흥기금 공모 설명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예술위)가 2020년 추진할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운영방향과 세부내용을 소개하는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예술위는 오는 30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시작으로 부산, 충북, 광주 3개 등 지역에서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광주(호남권) 설명회는 10월 8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신청서 양식 간소화 및 심의기준 개선', '심의위원 후보단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단계별 심의과정 공유 확대 등 '열린 심의' 진행' 등을 설명한다. 이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국제예술교류, 예술인력육성, 신나는예술여행 등 6개 분야 43개 사업설명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사업의 신청접수는 10월 1일부터 24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예술위 홈페이지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황토회 '풍경 스케치' 50주년 기념전, 10월 6일까지 양림미술관

지난 1969년 목포 미로화랑에서 '황토회'전이 열렸다. 오지호·배동신·김인규·최용갑·김수호·강동문 등 쟁쟁한 6명의 작가가 회원으로 참여한 '황토회'의 창립전이었다. 전라도 땅을 상징하는 '황토'를 그룹 이름으로 정한 작가들은 매회 전시회를 통해 미술 애호가들을 만났다.

지역 화단에 큰 획을 그은 황토회(회장 고희자) 50주년 기념전이 오는 10월 6일까지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 전에는 역시 올해 50주년을 맞은 대구 지역의 대표적 구상 미술 그룹 '이상회'(회장 최경수)가 함께 참여한다. 두 단체는 지역에서 50년 세월 동안 꾸준히 그룹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해왔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번 전시를 함께 꾸렸으며 내년에는 황토회가 대구 전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광주 전시 후에는 황토회 첫 회원전이 열렸던 목포(목포 도립도서관 남도화랑·11월21일~27일)에서도 전시회를 열 계획이 있어 의미를 더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용근·박석규·신동원·김해자·김수복 작가 등 회원 18명이 참여했다. 또 대구에서는 구교원 작가 등 11명의 작가가 작품을 전시하며 서울의 조성호, 전주의 박중수 작가가 초대 출품했다.

참여작가들이 화폭에 풀어놓은 소재는 다채롭다. 함께 스케치 여행을 다녀와 마음에 남았던 제주도·남해안 등의 풍경



고희자 작 '화원의 순간'

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정물, 인물, 일상의 모습 등 다채로운 소재를 개성어린 시각으로 화폭에 풀어냈다.

작가들이 들고 나며 회원 수의 변화는 있었지만 황토회는 지금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회원전을 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황토회를 거쳐간 회원들은 80여명이며 올해 박순천 작가 등이 새롭게 합류해 현재 28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황토회는 11월에는 LH공사 휴양갤러리에서 30만원 균일가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특별 월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회원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